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 운영

十匙一飯 온정의 손길 이어져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온정의 손길이 담지하고 있다. 서급자 내촌보건소 직원이 매월 2만원씩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송중재 (주)삼흥 대표이사도 100만원을 출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 달라고 기탁하기도 했다.

또 이용모 건국대학교 교수가 포천의제21 특별강연 강사로 초청돼 강의료를 지급하고자 했으나 사양하자 포천의제 21에서 강사로 3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창구에 기탁했으며 김진호 가산교회 목사가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리라 10만원을 맡겼다.

또 고남석 제일사우나 대표는 지난 1년동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기탁했으며 12월에도 56만원을 기탁하고 특별보급액 18만원을 또 기탁해 도움을 손길을 멈추지 않

았다.

김중현 본지 조사위원장은 매월 20만원을 자동이체 시켜 불우이웃을 돕는데 큰 힘을 실어 주고 있으며 김재명 삼호상사 대표가 30만원을 기탁하며 어려운 때 일수록 서로 도움을 주며 살아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황무연 성하플라워 대표가 5만원, 최인환 완주섬유 대표 10만원, 송영필 S&K대표이사도 20만원, 이미숙 의정부시무용단 단장이 10만원 등 불우이웃을 돕는 손길이 멈추지 않고 있다.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고은기업(주) 엄정삼 대표이사는 본지 불우이웃돕기 창구의 취지에 박수를 보내며 10만원을 선뜻 기탁했고 양주승 포천시 법원 민사조정위원회 회장 10만원, 윤이용 (주)동성사 대표이사가 40만원,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임경순 단장이 10만원을

각각 기탁하며 춥고 살기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이처럼 도움의 손길이 담지하고 있으며 담지한 성금은 우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다.

본지 불우이웃돕기에 리더캐미칼 황광익 대표이사가 기탁한 전기담요 전달식도 가졌다. 권귀자 본지 주부명예기자단 부단장이 이동장암교회와 함께 이동면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기담요를 전달하고 올 겨울 따뜻하게 보내라며 격려했다.

특히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는 전찬우 어린이에게도 전기담요를 전달하고 격려했으며 독거노인 5명에게도 전기담요를 전달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경찰, 외국인 인권보호 앞장선다



포천경찰서는 구립 20일 민간인 통역요원 및 외국인근로자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인 통역요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간인 통역요원 간담회

포천경찰서(서장 김영배)는 최근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관련 범죄와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관련 범죄 수사시 민간인 통역요원을 활용하여 외국인 인권 보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구립 20일 민간인 통역요원 및 외국인근로자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민간인 통역요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포천경찰서는 외국인 관련 범죄와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적 이질감 및 불법체류 자라는 신분상 제약, 그리고 언어 소통에 대한 문제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상담 등 통역요원의 활용이 요구돼 왔다. 포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가운데 중국 등 8개국 15명을

선발해 범죄피해 신고 및 수사시 실질적인 지원활동을 할 수 있는 통역요원을 운영 중에 있고, 아울러 민간인 통역요원을 상대로 외국인 인권침해 사례 등을 모니터링하여 신고 및 계도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범죄피해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범죄·노임문제·출입국관계·일반민원 등 폭넓은 상담을 통해 외국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서울출입국사무소 의정부출장소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조하여 외국인 범죄 예방 및 인권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범죄피해 신고센터 포천경찰서 보안계(031-533-9113), <http://pc.ggpolic.go.kr>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다 ㉕

일동면 길명2리 이장 이광민

“전통을 잇고 미래를 열어요”

포천시 일동면 길명2리는 조선시대 명필로 유명한 양사언 선생의 묘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사당, 묘를 오르기 위한 98개의 계단이 있는 마을로 유명하다.

길명2리는 점일 양운서 이장에 뒤를 이어 지난 2003년부터 이광민(44) 이장이 이끌고 있다. 이광민 이장으로부터 마을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길명2리에는 110세대 400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원주민이 90여 세대를 차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화합과 이웃 간의 정은 어느 마을 부럽지 않다.

주민들은 주로 벼농사를 짓고 있지만 특산물로 버섯, 고추, 고추, 원예 등 재배하면서 작목반을 구성해 마을의 경제적인 수입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길명2리에 구성된 작목반은 지역단위농협이나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구성된 것이다



이광민 이장 일동면 길명2리

하지만 평균 큰 규모의 평균 농지가 7~8천평이고, 이곳의 연평균 소득이 2000만원 정도로 경제생활의 부담을 앓고 있어 다수의 주민이 가산면이나 포천동으로 출퇴근하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길명2리는 이 이장을 중심으로 15명으로 구성된 개발위원회가 마을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으며, 노인회(회장 이성호), 청년회(회장 박인태), 새마을지도자(김정화), 부녀회(회장 최민숙)으로 마을조직이 구성돼 있다. 마을의 행사는 대부분 노인회를 주축으로 치러지며, 청년회와 부녀회 등이 이를 도와주고 있다.

구립 12월 마을회관을 준공한 길명2리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각종시설을 이동 및 설치해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노인회를 위한 게이트볼장 설치가 논의되고 있다. 마을회관 옆으로 형성된 농지를 게이트볼장으로 전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마을주민들의 적극적인 설치 노력과 포천시의 의지가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내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노인들의 정서함양 및 소일거리 제공을 위해 일동면 차원에서 계획중인 쉼골에 교육을 실시해 노인들의 여가 생활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길명2리의 연중 행사는 다양하게 있지만, 연초에 실시하

는 정월대보름 행사와 여름에 금주산에서 펼치는 산신제가 주목할 만하다.

정월대보름 놀이는 옷놀이, 풍물패의 지신밟기, 달집태우기 등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풍물패의 지신밟기는 전통을 살려 가가호호 방문해 각 가정의 액운을 쫓아내고, 복을 부르는 의식으로 마을주민들 뿐 아니라 인근 풍물패 등이 참여해 대화합을 이룬다.

음력 8월 1일에 치르는 산신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금주산에서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진행되며, 화주 1명과 제관 1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牛) 한 마리를 통째로 제물로 사용한다. 제물 후 삼은 소는 산신제를 지낸 후 마을주민들이 공평하게 나누며 마을 잔치를 벌인다.

한편 길명2리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속화도로의 공사로 인한 마을 주민간의 불신과 반목으로 주민화합이 자칫 위태로웠었다.

이 이장은 “고속화도로 공사 후 도로제방에 가려 양계장에 화재가 난 것도 모를 정도로 마을이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고, 공사 중 발생한 각종 보상 문제로 주민인심이 피해됐던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도로제방 등에 살구나무를 식재하는 등 주어진 여건에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마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2월 완공된 마을회관을 지을 당시에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토지 회사 등으로 마을화합과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것 같다”며 “마을회관을 화합의 구심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광릉숲 생태계 개선 기대



광릉숲 자연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게 될 포천시 직동하수처리장이 구립 29일 준공됐다.

포천시 직동하수처리장 준공

포천시는 구립 29일 직동하수처리장을 준공해 하천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광릉숲 자연생태계 및 봉선사천~왕숙천~한강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포천시 소흘읍 직동리 55-4번지 일원 2천896평의 부지에 들어선 직동하수처리장은 차관길로 5.015m에 하루 1,200m³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수처리구역은 소흘읍 직동리와 이곡리이며, 이곳 1천750여명의 주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를 정화해 봉선사천으로 방류하게 된다.

직동하수처리장은 지난 2003년 9월 공사에 들어가 이번에 완공을 보게 됐으며 국비 84억여 원, 도비 6억여 원, 시비 33억여 원, 수계기금 43억여 원 등 총 166억여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연말연시 무재해운동 강조기간 행사

한국산업안전공단 의정부지도원(원장 하정호)은 구립 19일 근로자의 작업리듬 및 현장 분위기 변화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무재해운동 강조기간을 정하고 실시하여 산재사망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사망재해 예방 및 사업장 무재해를 통한 노·사 신뢰성 구축과 자긍심 고취로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토대로 근본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재예방에 기대된다.

이번 '연말연시 무재해운동 강조기간' 행사는 구립 1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개월동안 실시되며 공단에서 정한 "산재사망도 살인이다" 사망재해를 줄인다" 라는 슬로건을 홍보함으로써 각 사업장별 안전정보의식 고취를 위한 자체행사 실시 및 무재해 결의대회를 통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의 정착에 기대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사 봉사활동

농업기반공사 연천·포천지사(지사장 전중생) 직원 20여명은 구립 22일 어려운 이웃돕기운동 실천으로 연천군 신서면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안나의 집'을 방문해 불우이웃돕기 운동의 일환으로 모금한 커피 자판기 수익금으로 생필품을 구입,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비닐막치기, 문풍지 부착 등 월동준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연천·포천지사는 지속적인 이웃돕기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립 10월 13일 10kg 우리 쌀 사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관내 쌀 전업농 단체로부터 쌀320kg을 구입하여 전달하기도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안 마련

포천시가 '야생동물에 따른 피해보상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하고 구립 30일까지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포천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 농업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규칙안을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작자가 관내 농경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한해 실시하도록 그 요건을 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안은 또 피해보상에 필요한 '피해발생신고서' 등 필요한 서식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농업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 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부서(031-538-2249)로 문의하면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실시한 후 작성하게 되는 '농작물 피해 현지조사서'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 서식 등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작자의 농작물피해 예방조치에 따라 차등 보상 할 수 있도록 보상단가 및 비율을 정하고 있는데, 피해액의 최고 70% 범위 안에서 ▶전기목책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100% ▶울타리, 그물, 경운기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80% ▶피해방지시설이 없는 경우 60% ▶보식 또는 대작이 가능한 경우 20%를 각각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농축산물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서면이나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12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인터넷 홈페이지 (www.pcs21.net) '입법예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 시청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부서(031-538-2249)로 문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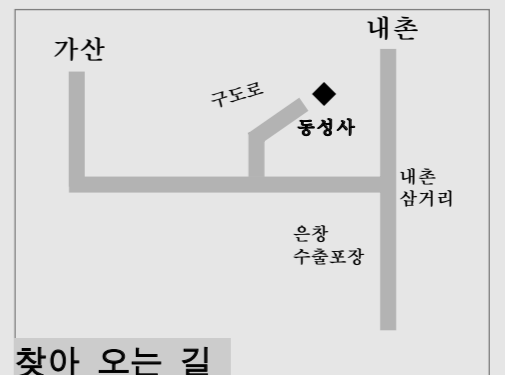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謹賀新年

가구 장식용, 인테리어 소품생산의 선두주자 동성사



- 생·산·품·목
- ◆ 오디오 장식장
 - ◆ 인테리어 소품
 - ◆ 가구 장식품 부품
 - ◆ 불박이장 부품
 - ◆ 드레스룸 장식장 부품 (APT)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1/ Tel: 031)532-2123, Fax: 031)532-2122/ 대표 : 윤 이 용